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음 6월 23일) 제16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도교육청, '사립학교 대변인' 오명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 대변인'이라는 전교조의 낯선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말로만 사립학교 개혁을 외칠 뿐 실질적인 지도감독권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25일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15년 정책업무협약'을 통해 사립학교와 관련한 사항들을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사항을 보면 우선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인사위 규정'을 지난 3월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와 인사위원회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약속 기간을 지키지 않아 전북지부의 거듭된 요구에 지난달 말에서야 게시(도교육청-교원인사과-부서자료실)했다.

하지만 전북지부는 해당 게시 인사위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사위원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추천)해야 함에도 사립학교 전체 121개 학교 중 약 48%인 58개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테면 '위원 선출 규정을 두지 않는 학교'는 25개교,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해 당연직 위원이 과다한 학교'가 14개교,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는 8개교, 심지어 '인사위원장을 교감이 아닌 학교장이 맡고 있는 학교'가 3개교 등이다.

특히 전주A여고와 전주B중은 위원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교단이 인정하는 교회 서리집사 이상 인사'로 해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학교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사립학교의 인사위는 공립학교의 인사위(자문기구)와 달리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C중은 여전히 '자문기구'로 돼 있다.

교내 인사위를 두는 이유는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법에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38%인 46개교는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시 위원회의 심의규정 '지켜가 없다'.

이는 교감 지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이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대차·현대중공업 정상화”

2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정상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단체들이 참여했다.

### 전교조 “개혁은 ‘말로만’ 실질적인 지도엔 ‘모르쇠’

### 인사위 규정·사학조례 제정 지켜지지 않아” 비판

심지어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체의 32%인 39개교는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학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전북지부와 합의했다.

2014년 당시 김승환 교육감 후보의 2기 임기의 핵심 공약으로 당선 후 출범준비위원회 백서에도 이를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2기 임기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전북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북지부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2014년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인 김 교육감이 만약 조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면 도민

을 우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및 예·결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전북지부는 일갈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뒷집만 친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이리저리, 이 부서 저 부서로 떠넘기거나 ‘사립학교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마치 사립학교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전주시,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용역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이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행복도를 측정기로 했다.

전주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용역은 시민들의 행복도를 파악해 전주가 사람이 우선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주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국내·외 행복조사 흐름에 맞는 지표를 반영해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실질적인 행복지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등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팀의 질적 연구와 시민 설문조사를 연계해 결과를 용역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연이은 폭염... 도심 피서지 찾아 삼만리

### 은행·백화점 '복새통'

### 도심 공공장소 매출 증가 에어컨 판매량도 급증세

“은행이라도 찾아서 무더위를 견뎌야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점퐁으로 변해 버린 25일 오후 3시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농협.

더위 때문에 은행으로 피신(?) 왔다는 김모(65·여)씨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그래도 자기는 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선풍기 한 대에 집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주시내 한 극장 로비도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전주는 낮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면서 폭염경보가 내리는 등 일주일째 가마솥 더위가 지속 중이었고 극장 로비에는 평상시와 달리 삼삼오오 데이트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특히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젊은 층들이 더위를 피해 도심 피서를 즐기고 있다는 게 극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극장 관계자는 “영화도 영화지만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극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머문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폭염과 함께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은행이나 관공서, 백화점, 영화관 등



더위를 피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찬 전주농협 내부.

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기온은 22.3도(°C)로 평년(21.2도) 대비 1.1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평균기온은 18.6도로 평년(17.2도)대비 1.4도 높았고 197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무더위로 여름철 가전제품 대명사인 에어컨 판매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이마트에 따르면 7월초부터 전체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비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대야 등 무더위에 에어컨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즐거움은 비명이다.

이러한 판매 증가세는 대부분 가전 유통업체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올해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7~9월 약 3달 동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우병우 퇴진에 새누리 친박까지 나섰다”

### 더민주, 우수석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각종 의혹으로 아편은 물론 여권내 일부에서도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보다 못한 여당과 여권내 친박까지 나섰다”며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대

통령을 위하는 것이라 조연해도 우수석은 대통령의 '허명'이 아닌지라 끝까지 버틸 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역 땅 매매로부터 시작된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그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아이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가족여행~~

# 2016 고창갯벌축제

2016. 8. 5(금) ▶ 8. 7(일) [3일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하전 갯벌체험학습장  
<http://mud-exp.gochang.go.kr>

개막축하콘서트  
송대관, 김연자, 김혜연, 이예리, 진성, 오로라 등

8월 5일 (금) 19:00

8월 6일 (토) 18:30  
축하콘서트  
장미여관

8월 7일 (일) 17:30  
초대가수  
박일준 외 지역가수

주관: 고창갯벌축제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사)고창한수원, 안수원(주)안빛원자력본부, 만원어촌계, 아전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